

K리그1 전북현대 지휘봉 잡은 단 페트레스쿠 감독

“올해 안되면 내년까지 우승”

“10년이라도 맡고 싶어 압박감내 각오 돼 있다”



전북현대 단 페트레스쿠 신임 감독(사진 오른쪽)이 14일 경기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박지성 테크니컬 디렉터와 대화하고 있다.

프로축구 전북현대 지휘봉을 잡은 단 페트레스쿠(56) 감독이 자신의 감독 경력에서 가장 큰 구단을 지휘하게 됐다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페트레스쿠 감독은 14일 오전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에서 감독을 할 때 전북과 챔피언스리그에서 붙었다. 전북 경기장의 시설이 좋았고 팬도 인상적이었다. 언젠가 전북에 감독으로 오고 싶었다며 “내 감독 커리어에서 맡은 가장 큰 구단이다. 현 시점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페트레스쿠 감독은 전북의 제안을 받고 주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박지성과 디마테오의 전화를 받고 전북이라면 가겠다고 했다. 전북은 한국과 아시아에서 가장 큰 클럽”이라며 “계약기간 2년 반 동안 차근차근 발전하고 리그뿐만 아니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페트레스쿠 감독은 향후 10년이라도 전북을 맡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그동안 한 구단에 5년, 3년, 1년씩 있었지만 여기서는 10년이라도 있었으면 한다”며 “감독을 하면 압박감이 있지만 감내해야 한다. 이를 감내할 각오가 돼있어서 제안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페트레스쿠 감독은 전북의 순위를 5위에서 1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이전에 하위권이었던 알나스르나 디나모 모스크바를 맡

았을 때도 순위를 끌어올렸다”며 “전북도 5위에서 1위로 끌어올릴 수 있다. 쉽지 않지만 자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현대에는 단 페트레스쿠 감독 선임에 맞춰 데 이어 여름 이적시장을 통해 선수를 영입해 전력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성 전북 디렉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새 감독이 선수단을 파악하는 것”이라며 “파악 후에 어떤 부분을 보강할지 의견을 저와 스태프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트레스쿠 감독은 이날 전북 선수단에 대한 평가를 자제하면서 선수단 파악을 우선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수단 파악 후 선수 영입 작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전북은 이미 영입 후보 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디렉터는 “후보 리스트에 올린 선수들을 대대적으로 의논해야 한다”며 “큰 변화는 없었지만 필요한 선수에 한해 영입하겠다. 아직 (전북에) 외국인 쿼터 부분이 남아 있다. 이를 고려해서 영입할 생각이

갖고 있다”고 밝혔다. 페트레스쿠 감독은 구단과 협의해 영입 대상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알나스르 복귀 가능성이 있는 김진수에 관해서는 잔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페트레스쿠 감독은 “(선수 영입은) 혼자 결정하지 않고 구단과 함께 논의하겠다”며 “김진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남았으면 한다. 주장단 역할을 소화하므로 남아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뉴시스



우석대학교 태권도학과 시범단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 일원에서 개최된 제82회 요사코이 소란마츠리 축제에 유일한 외국팀으로 초청받아 공연을 펼쳤다

日 홋카이도에 태권도의 멋 전파

우석대 태권도 시범단, 삿포로 일원 개최 요사코이 소란 마츠리 축제서 초청 공연

우석대학교 태권도학과 시범단이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대표 축제에 초청받아 화려한 태권퍼포먼스를 선보였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시범단 박민준 코치의 단원 35명은 포스댄스컴퍼니 오해룡 대표 외 단원 5명과 함께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 일원에서 개최된 제82회 요사코이 소란마츠리 축제에 유일한 외국팀으로 초청을 받았다.

이 축제에서 시범단은 홋카이도 오도리공원 거리 등 3곳에서 품새와 격파, 댄스 등을 접목한 태권극 도끼비를 선보였다.

한편 홋카이도 3대 축제로 손꼽히는 이 축제는 1992년 젊은이들

을 중심으로 ‘거리의 우리의 무대!’라는 슬로건으로 현재 약 200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홋카이도는 물론 타지역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축제의 제전으로 성장했다. 호시노 히사오 요사코이 소란마츠리 축제 조직위원장은 “태권도의 멋을 알게 됐으며, 우석대학교 태권도학과와 포스댄스컴퍼니 시범단의 공연은 최고였다”고 평했다.

김희정 태권도학과장은 “앞으로도 포스댄스컴퍼니와 꾸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차별화 된 퍼레이드 퍼포먼스로 태권도를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성기자

‘골짜기 세대’ 설움 듣고 2회 연속 4강 진출

U-20 월드컵 축구대표팀

온갖 약재를 뚫고 ‘원팀’으로 2023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4강 쾌거를 이룬 김은중호가 급의환했다.

김은중 감독이 이끈 U-20 축구대표팀이 1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귀국했다.

현지 적응을 위한 브라질 전지훈련을 위해 지난달 7일 출국했던 김은중호는 대회 마지막 날까지의 여정을 마치고 39일 만에 돌아왔다.

김은중 감독을 필두로 총 21명의 선수와 코치진 지원 스태프가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U-20 월드컵에서 스타로 떠오른 주장 이승원(강원)은 대회 최우수선수(MVP) 3위에 해당하는 ‘브론즈볼’을 들고 나왔다.

공황에는 300여명의 팬들이 4강을 달성한 김은중호를 반겼다. 일부 팬들은 선수들의 유니폼을 가져와 환영하기도 했다.

축구 팬 오현아(20 서울)씨는 “최석현(단국대) 선수의 팬”이라며 “골짜기 세대라 쉽지 않았을 텐데 4강 진출을 이뤘다. 팬으로서 정말 감동이었다”고 말했다.

김은중호는 지난 12일 아르헨티나 라플라타 스타디움에서 치른 2023 U-20 월드컵 3·4위 결정전에서 이스라엘에 1·3으로 져 4위로 대회를 마쳤다.

입상에는 실패했지만,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2019년 폴란드 대회(준우승)에 이어 2회 연속 4강 진출이란 성과를 냈다.

스타플레이어가 없는 ‘골짜기 세대’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조별리그 첫 경기부터 강호 프랑스를 꺾으며 이번을 예고했고, 에콰도르와 16강, 나이지리아와의 8강전을 모두 승리하며 4강까지 진격했다.

준우승을 한 2019년 폴란드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4강 진출이다.



U-20 월드컵에서 4강 진출을 이룬 한국 축구대표팀이 1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열린 귀국 환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실 김은중호의 4강을 예상한 이는 거의 없었다. 대회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개최지가 인도네시아에서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로 바뀌었고, 유럽과 이현주(바 이에른 뮌헨) 등 일부 주전 선수들이 부상으로 낙마했다.

또 조별리그 도중에는 스트라이커 박승호(인천)마저 발목 골절로 조기 귀국하는 등 전력 누수가 있었다.

하지만 김은중호는 ‘원팀’으로 고난을 이겨냈다. 소속팀에서 출전 시간이 적어 경기 감각이 부족했던 선수들을 하나로 뭉쳐 끈끈한 축구를 보여줬고, 세트피스를 활용한 ‘실리 축구’로 강호들을 연달아 잡아냈다.

새로운 보석도 발견했다. K리그 데뷔도 하지 못했던 무명 이승원은 이번 대회에서 3골 4도움으로 4년 전 골든볼을 수상한 이강인(마요르카)을 넘어섰다.

이승원은 대회 최우수선수 3위에 해당하는 브론즈볼도 받았다.

대한축구협회는 2회 연속 U-20 월드컵 4강 진출에 성공한 김은중호를 위한 환영식을 열었다.

U-20 대표팀을 반긴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지난 폴란드 대회 준우승에

이어 4강 신화를 다시 이뤘다. 아시아 국가에서 최고로 세계적으로도 흔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국제 무대에서 잘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며 “소속팀에 돌아가서 선배들과 경쟁해야 하는데, 대회에서 보여준 기량을 팀이나 프로 리그에서 계속 보여주길 바란다. 조만간 A대표팀에서 다시 만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지에서 4강을 함께한 장외동 단장은 “선수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젊은 친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줘 감사하고 기쁘다”며 “앞으로 올림픽 국가대표를 향해 끊임없이 진전하도록 격려와 박수로 환영해주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대회 출전하기 전에는 선수들이 관심을 못 받은 건 사실이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선수들이 증명했고,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다는 걸 저 역시 확인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이게 끝이 아니라 소속팀에 돌아가서 자신과 경쟁에서 이기고, 선배들과 경쟁에서 이겨서 경기장에서 많이 뛰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선수들에게 고맙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2023 민간문화시설 기획프로그램 지원사업

문화공간이름
개관 5주년 기념 콘서트

신박듀오

Maurice Ravel
Gabriel Fauré
C. Saint-Saëns
Georges Bizet

2023. 6. 24(토)
5:00pm

문화공간이름
ART SPACE

주최·주관 | 문화공간이름
후원 | 한국문화재단, 문화재단, 문화재단, 문화재단
진주문화재단, 문화재단, 문화재단
기획 | 이윤정
티켓 | 연석 무료
문의 | 카카오톡 채널 '문화공간이름'
1:1 문의 063)223-5323